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221 (받아주소서)	153 (오소서 주 예수여)	96 (하느님 약속하신 분)

제 1독서 | 예레 33,14-16

화답송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좌)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우)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좌)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 2독서 | 1테살로니카 3,12-4,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1,25-28.34-36

영성체 후 묵상 |

새로운 교회의 전례력을 시작하며 하느님께 드릴 약속과 다짐을 마련하는 대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 1독서 예레미야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과 참사랑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다림의 대림시기 동안 내 마음을 일깨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Gospel - Luke 21,25-28.34-36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and on earth nations will be in dismay, perplexed by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People will die of fright in anticipation of what is coming up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But when these signs begin to happen,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stand erect and raise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at hand.

“Beware that your hearts do not become drowsy from carousing and drunkenness and the anxieties of daily life, and that day catch you by surprise like a trap. For that day will assault everyone who lives on the face of the earth.

Be vigilant at all times and pray that you have the strength to escape the tribulations that are imminent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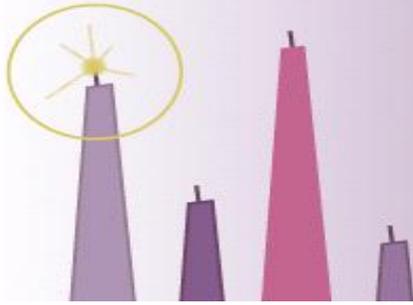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신앙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은 주일미사를 참례하고 윤리적 삶을 지켜나가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만남, 우리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자이신 그분의 인격과의 만남의 여정이고, 그분과 사랑의 우정을 깊여가는 여정임을 잊지 맙시다.

어느 학자가 ‘하느님은 명사(noun)가 아니라 동사(verb)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며,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이렇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랑을 혼자만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대림시기 전례에 관하여



12월이 되면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북적입니다. 그리고 북적이는 길거리에서 축제를 위한 화려한 장식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인이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든, 누구에게나 하나의 축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세상의 화려함과 달리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초대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탄”의 준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재림하실 구세주를 기다리자고 촉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더욱 차분하고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림 시기는 두 가지의 시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대림 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의 어둠을 희망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구체적인 성탄을 준비하도록 초대합니다. 12월 16일까지는 “대림 제3주간 월요일”이라고 표시하지만, 12월 17일부터는 “대림 0주간 0요일”이라는 표시가 사라지고 세상의 달력이 표시됩니다. 이는 대림 시기의 구분을 전례력으로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

현입니다.

대림 시기의 전례적인 상징으로는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는 것(사순 시기처럼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는지만 알렐루야는 노래합니다.)”, 제단에 “대림환”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대림환은 월계수나 전나무 또는 비슷한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화환에 네 개의 초로 장식한 것을 말합니다. 네 개의 촛불은 대림 시기 4주간 동안 차례로 켜으로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다가옴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많은 신자분이 대림초의 순서에 대해서 묻곤 하시지만, 전례법적으로 정형화된 답은 없습니다. 초를 만들고, 켜는 방법보다는 초를 켤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께로 두는 것이 대림환이 갖는 목적성에 더욱 합당할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음 구절을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춰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4-5)”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그리스도인의 기도> - 교황 프란치스코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라틴어 한 단어를 형용사, 명사, 부사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이 표현 하나에 깊은 가르침이 담겨있기에 기억해둘 만합니다. 그 옛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말리, 말라, 말레 페티무스”(mali, mala, male petimus)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mali)이기에, ‘잘못된 것들을’(mala) ‘잘못된 방식으로 청한다’(male petimus)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먼저 곁들여 받게 될 것들, 곧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청하고, 하느님 나라를 찾는 일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주님께 그분의 나라를 청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고해성사

대림시기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께 겸손되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모든 신자분께 고해성사를 권고 드립니다.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옆에 적혀있는 소공동체반 순서대로 성사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공동체반 이후에 성사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신자 분들 누구나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임 신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 12월 1일(주일) - 마태오반
- * 12월 8일(주일) - 마르코반
- * 12월 15일(주일) - 루카반
- * 12월 22일(주일) - 요한반

2. 사랑의 선교회 수녀원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3. 반주 및 독서 봉사자 모집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례분과장님께 (김수현 수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시즌 여정 2 - 영적독서 나눔

*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목주기도 후

독서 모임을 위하여 다음 부분을 읽어주세요

- * '예수의 생애' - 159p까지
- *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 셋째 밤 챕터

| 미사 참례자 수 |

11월 17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47명
11월 24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40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다음주 (12월 8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2월 1일)	마태오반
다음주 (12월 8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11월 23일 ~ 11월 29일)

봉 헌 금	\$ 231			
교 무 금	\$ 1,490			
구민식	권모순	손재호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